

일본-타이완 반도체 “손잡는다”

Powerchip·Rexchip·Promos 물망 ... 삼성전자 뒤 잇는 거대그룹 부상

일본의 최대 D램 반도체 생산기업인 Elpida가 타이완의 주요기업들과 자본 제휴를 포함한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영통합을 포함해 자본 제휴가 성사되면 D램 최대 메이저인 삼성전자에 이은 거대한 D램 그룹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lpida는 제휴 상대로 반도체시장 세계 6위인 타이완의 Powerchip과 Rexchip, 세계 8위인 Promos 등 3사와 연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개시해 자본·업무 제휴를 타진하고 있다.

한편, 타이완 정부는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D램과 액정패널 생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Elpida는 업무제휴 등과는 별도로 재무체질 개선을 위해 Rexchip에 대해 3월 말까지 수백억엔 규모의 추가 출자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lpida의 지분은 52%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09>